장부부터 주식회사까지 금융 비즈니스 연대기

부의 지도를 바꾼 회계의 세계사

다나카 야스히로 지음· 황선종 옮김

일반적으로 회계하면 숫자와 계산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더욱이 회계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인이라면 더욱 낯선 분야가 회계다. 그러나 회계는 역사가 바뀔 때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알려진 바로는 회계를 비롯한 금융 비즈니스는 중세 유럽부터 시작됐다. 부를 집적한 개인이나 국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상업, 금융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장부부터 주식회사까지 세계를 바꾼 금융 비즈니스 연대기가 책으로 출간됐다. 다나카 공인회계사무소 소장인 다나카 야스히로가 펴낸 '회계의 세계사'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인류를 풍요롭게 했던 회계의 역사를 조명한다.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진 15세기 이탈리아의 번영을 이끈 것은 상인들이었다. 지중해 무역을 통해 동방과 교역을 했던 상인들은 항상 재해와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그 무렵 현금이 없어도 상업 활동이 가능한 반코가 등장했다. 반코로 환어음 거래와 같은 무현금 서비스가 활성화됐다. 또한 각 도시국가별로 통화 환전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수수료 사업이 발달했다. 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체계적인 기록이 필요했다. 장부, 부기, 대차대조표 등 회계 개념이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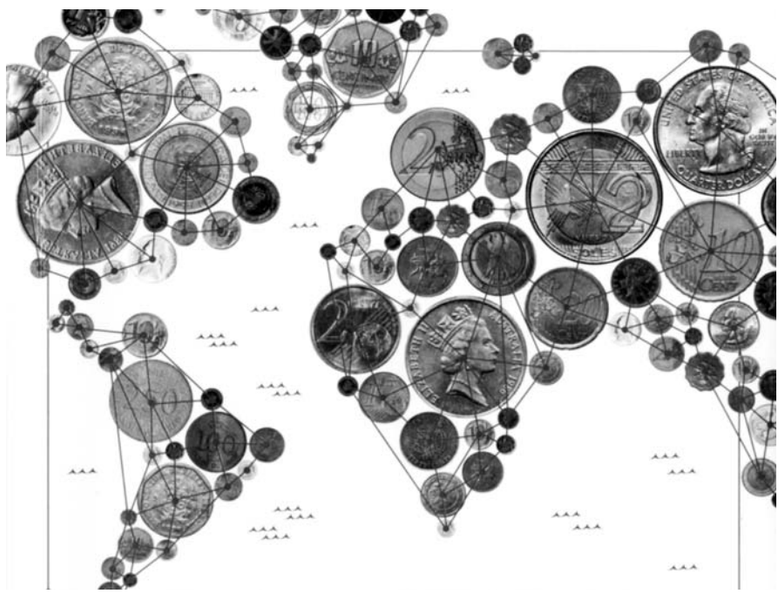
당시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됐던 게 바로 '부기'다. 상거래의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부기 보급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선생인 루카 파치올리다. 그는 1494년 수학서 '산술, 기하, 비율 및 비례 총람'을 발표했다.

"레오나르도도 애독한, '루카 선생의 산술서'라고 일컬어지는 이 책은 '27쪽'에 걸쳐서 부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6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 중 27쪽일 뿐인 내용이지만 그것은 비즈니스의 역사를 크게 바꿀 정도로 강력했다."

저자는 15~16세기 르네상스 전성기를 가져온 메디치 가문의 은행 사업과 금융 네트워크의 시작부터 17~18세기 네덜란드와 대규모 동인도회사, 주식과 주주, 증권거래소의 탄생 등 근세의 상거래 변화도 설명한다. 또한 해상 무역과 금융 서비스의 관계, 가족과 친족 중심 상업에서 주주가 등장하는 주식회사까지의 변화도 아우른다.

19세기 영국의 증기기관차 발명은 산업의 판도를 획기적으로 바꾼 계기다. 많은 돈이 필요한 철도회사는 투자자를 모아 이익을 내고 이를 분배하는 배당 형태로 경영이 바뀐다. 이때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손익계산서가 등장한다. 그뿐 아니라 이윤을 평준화하고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감가상각이라는 회계 규칙도 탄생했다.

일련의 변화는 회계의 주인공이 '자신'(경영자)에서 '타인'(주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보고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경리업무였던 회계는 회계사 영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일반인에게는 낯선 분야인 회계는 역사가 바뀔 때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이나 국가는 더 나은 부를 얻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위즈덤하우스 제공〉

철도회사에 투자해 이익을 거둔 이들은 경쟁적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대공황 전까지 뉴욕의 주식시장은 열기에 휩싸여 있었고 제조업, 통신회사 등 새 분야 주식이 관심을 끌었다. 반면 사기나 내부자 비리 같은 무질서한 거래도 성행했는데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등이 마련됐다.

20세기에는 대기업시대가 도래했다. 앤드류 카네기는 분업 제도를 도입했으며 '석유왕' 록펠러는 경쟁 기업 통합으로 석유가격을 조절했다. 제너럴일렉트로닉은 할부 판매를 실시했고, 이것은 지금의 기업경영에서 볼 수 있는 경영법의 원조였다.

저자는 이처럼 장부가 탄행한 15세기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역사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변화된 금융 서비스를 고찰한다. 시대마다 관통하는 핵심은 부를 창출하고 미래의 가치에 적응할 제도를 체계화했다.

저자는 "담당업무를 하지 않는 한 경영자라 해도 세세한 회계 처리 기술을 배울 필요는 있다. 그보다는 '규칙이나 구조가 존재하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위즈덤하우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신만의 스타일 일궈낸 문학 작가들의 산문

'문지 에크리'

김현·김소연·김혜순·이광호 지음

김소연 시인을 이야기 할 때 시와 함께 많이 언급되는 게 그녀의 산문집이다. 그녀만의 섬세한 관찰력과 시각으로 어휘에 대한 단상을 풀어낸 산문집 '마음사전', '시옷의 세계', '한글자 사전'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고, 각자 자기만의 '사전'을 생각해 보게 만든다.

시인의 신작 산문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는 사랑도 소비하는 세상에서 "사랑에 무능력했던 나의 경험들이 사랑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에서 기인됐다고 생각해왔고 언젠간 이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다"고 생각한 시인이 써내려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정말 , 사랑에 대해 묻는, 사랑에 대한 질문 하나', '사랑을 받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용서와 용인과 용기' 등 20여편의 산문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삶 속에서 풀어내는 사랑 이야기와 함께 시인 최승자와 이병률, 페르난두 페소아의 작품을 통해 만나는 이야기도 흥미롭다.

김 시인의 신작은 1975년 창립 후 '문학과 지성 산문선'을 꾸준히 펴낸 문학과 지성사의 새로운 산문 시리즈 '문지 에크리' 중 한편이다. '에크리'는 프랑스어로 '씌어진 것, 혹은(그, 그녀가 무엇을) 쓰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출판사 측은 '쓰는 행위를 최대한 강조'한 이 시리즈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일궈낸 문학 작가들이 최대한 자유로운 방식으로 글을 쓸 것이라고 설명한다.

1차분으로 나온 4권 중 고(故)김현 시인의 '사라짐, 맺힘'도 있다. '김현 문학전집'(16권) 중에서 이광호 문학평론가가 가려뽑은 산문을 묶은 책은 김현이 생활공간에서 바라본 문화 현상, 독서체험과 삶의 문제, 외국을 여행하며 느낀 기행문, 피카소·자코메티·가우디 등의 작품에 대한 짧은 비평을 담고 있다.

김혜순 시인의 '여자짐승아시아하기'는 최근 그리핀 시문학상을 수상한 김 시인의 아시아 여행기이면서, '페미니즘이 시와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작품을 써온 그의 '시쓰기'에 대한 책이기도 하다. 그밖에 이광호 문학평론가는 고양이를 통해 침묵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는 '너는 우연한 고양이'를 내놓았다.

앞으로 시인 나희덕·이장욱·이제니·신해욱, 소설가 정영문·한유주·정지돈의 산문도 출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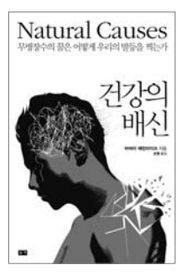
〈문학과 지성사·각권 1만 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놀이는 쓸데 있는 짓이다=집중력이 부족하고, 체력·지구력이 부족하며 공격적이고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 '자유롭게 밖에 나가 놀기'는 이들에 대한 처방전이다. '활동적 자유 놀이'가 부족한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고 어른들의 간섭 없이 이뤄지는 놀이를 통한 감각·운동 기능, 사회·정서 기능, 창의성 등의 발달 과정을 소개한다. 〈목수책방·1만7000원〉

▲내가 정말이라면=지난 2014년 중앙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유이우 시인이 등단 5년만에 출간한 첫 시집이다. 화려한 수사를 위시한 직설적 묘사보다는 세상 풍경을 관찰하며 단어 하나하나에 감정을 담아내는 유 시인의 시 50여편이 실렸다. 기존 시 문법에서 벗어난 과감한 행갈이, 성큼 뛰는 여백과 함께 모호한 단어의 조합이 만드는 기묘한 시상이 오롯이 담겼다. 〈창비·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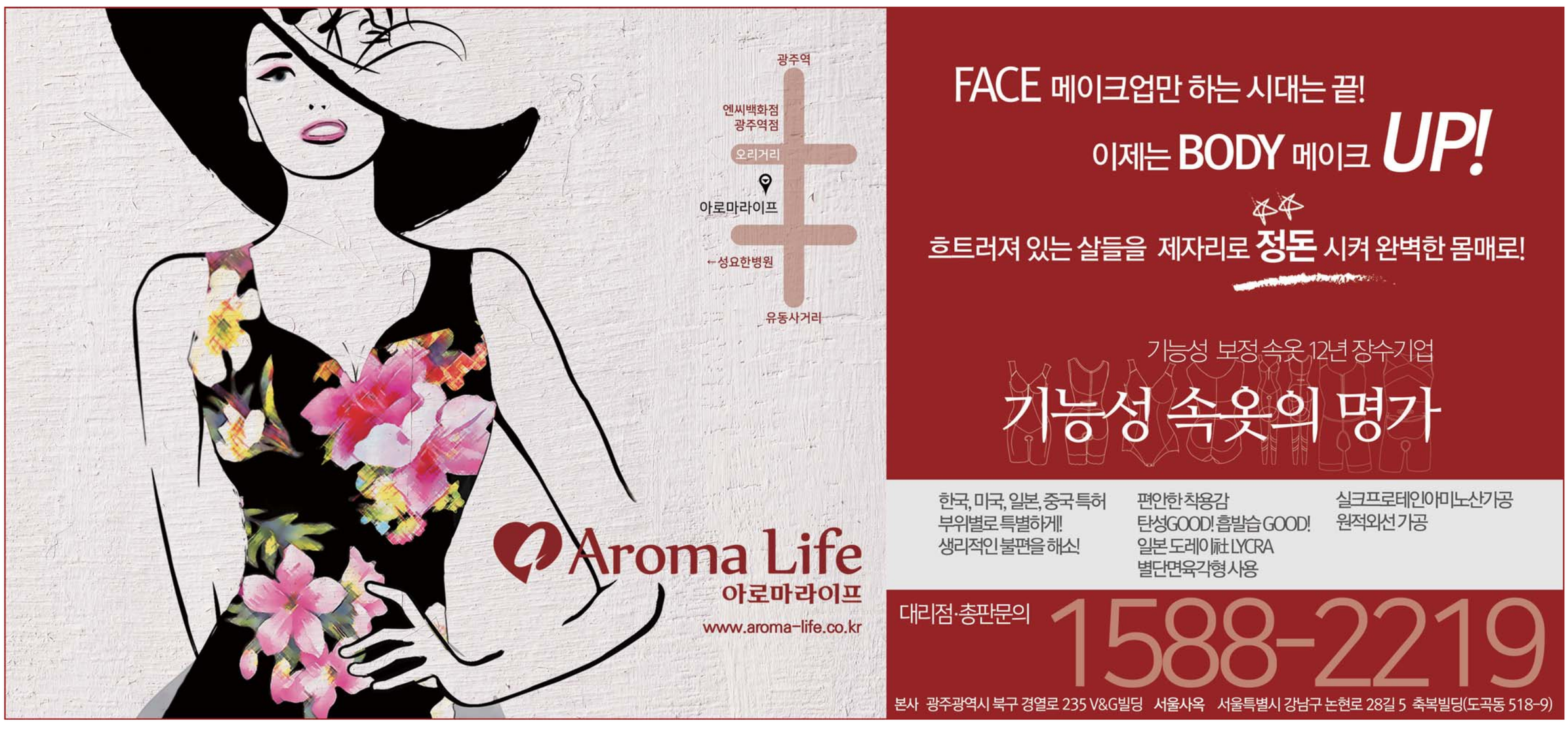


▲철학이 필요한 순간=수많은 이들이 행복을 바라며 자아실현·자기계발에 매달리고 있는 지금, 알보그대학교 스벤 브링크만 심리학과 교수가 말하는 '자기 삶을 사는 법'에 대한 철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심리학·자기계발서가 행복을 주관적 만족으로 여기는 것부터서 잘못됐으며 '관계적 존재'로서 자아를 만들어주는 다양한 삶의 관점들을 제시한다. 〈다산초당·1만5000원〉

▲건강의 배신='영생'의 꿈은 실현 가능한 일일까. '긍정의 배신', '노동의 배신' 등의 저자 바버라 에런라이크가 현대 의학의 장밋빛 약속과 건강 열풍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 신랄히 비판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이야기한다. '자기 절제'를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헬스 케어 산업, 웰니스 전문가들이 양산하는 과잉 진단, 건강 염려증 등을 짚는다. 〈부키·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으랏차차 조선 실록 수호대=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4개의 사고 중 3개 사고가 불타 없어졌고 남은 실록을 안의와 손흥록이 내장산으로 옮겨 보관했다. 이때 활약한 역적의 아들 석개, 줄광대 홍두, 의병장 팔모 등 전쟁 속에서 우리 역사를 지켜낸 100여명의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데 모아 펴냈다. 〈파란자전거·1만1900원〉

▲남달리와 조잘조잘 목도리=유기견 보호에 앞장서던 복성자 의원이 사실은 개를 싫어하고, 학대하면서도 정치적 '쇼'를 해 온 것에 불과함을 알게 된 주인공 '달리'가 말하는 토끼 목도리 '봉래'와 함께 겪는 이야기를 담았다. '동물권', '동물복지' 등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동물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달리의 모험을 통해 동물과 친구가 되는 법을 일깨워준다. 〈바람의아이들·1만1000원〉

▲작은 친절=포도주스를 쏟아 웃음거리가 된 친구 타니샤를 위로하고 싶어하는 '나'는 고민에 빠진다. 휴지를 가져다 줘야 하나? 윗옷을 빌려줘야 하나? 같이 주스를 뒤집어쓰고 웃음거리가 돼야 하나? 친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법을 궁리하며 차츰 친절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을 담았으며, 아무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함께 풀어낸다. 〈북뱅크·1만4000원〉